

“설계·공정 전부 바꾼다”… HD현대, ‘디지털 조선소’ 속도

선박 구조·시스템, 가상 환경서 검증
설계 변경·공정 충돌 사전 차단 초점
지멘스 디지털트윈 결합 전 과정 연결
생산효율·의사결정 정확도 동시 제고
미국 조선 협력서 핵심 경쟁력 부상

HD현대가 조선소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설계와 공정 관리 방식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인 조선 설계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글로벌 조선업의 운영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선박 설계와 공정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 구조와 시스템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해 설계 단계에서 검증하고, 공정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조선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설계 변경과 공정 변수를 사전에 점검하고,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복잡한 선박 구조와 다단계 공정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업 특성상, 설계와 생산을 연결하는 디지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LNG 운반선.

설계와 공정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HD현대 조선소는 영 체계 자체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HD현대는 지난해 11월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지멘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국 조선업 현대화와 조선소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조선 설계와 공정 관리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본격 적용하고 있다.

HD현대는 선박 건조와 조선소 운영 과정에서 축적해 온 노하우에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과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결

합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전 과정을 하나의 디지털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영향과 공정 간 충돌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건조 이전에 생산 흐름을 미리 검증함으로써 공정 안정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HD현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공개 발언에서도 대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조선업의 디지털 트윈 적용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HD현대를 언급하며 선박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볼트와 너트 단위까지 반영한 구조를 통해 설계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단순한 설계 3D 모델링(CAD)을 넘어 컴퓨팅과 전자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디지털 트윈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HD현대가 축적하고 있는 설계·공정 중심의 디지털 역량이 미국 조선 인프라와의 협력 과정에서도 중요

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소 운영과 엔지니어링 체계를 어떻게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지가 향후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조선 설계 체계를 바꾸겠다는 선언 자체가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향후 미국 조선소를 비롯한 해외 업계와의 공동 개발이나 협업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곽노정 “AI 생태계 전반과 손잡는다”… SK, 글로벌 협력행보 가속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CES 직접 찾아 AI 기술 트렌드 점검
엔비디아·AMD 등 핵심 인사 교류
고객 전시관서 AI 메모리 전략 설명
차세대 HBM·맞춤형 메모리 공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을 찾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AI 생태계 전반에서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공급망 전 영역에서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곽 사장이 이번 행사 기간 중 25곳의 주요 고객사와 파트너들을 연이어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전시 기간 중 현장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인공지능(AI) 트렌드



(왼쪽)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소재·장비 협력사인 머크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도 직접 확인했다.

곽 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 폰텐블로 호텔에서 열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특별 연설을 참관하며, AI 사업과 관련된 신규 비전을 경청하고 기술적인

사이트를 얻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베네치안 호텔에서 진행된 리사 수 AMD CEO의 기조 연설 행사에 참석해 새로 공개된 AI 가속기와 시스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또 AI 인프라, 영업,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하는 핵심 임원들과 함께 향후 고객 플랫폼에서 회사의 역할과 차별화 전략을 점검했다.

곽 사장은 지난 6일에도 베네치안 엑스포의 SK하이닉스 고객용 전시장을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전시관을 마련했다.

이 현장에는 차세대 HBM 제품인 HBM4 16단 48GB를 비롯해 HBM3E, 소캠2(SOCAMM2), 최신 저전력 D램(LPD DR6) 등 최신 제품이 공개됐으며 특히 고객맞춤형 ‘cHBM(Custom HBM)’ 구조를 시각화해 전시했다.

곽 사장은 현장에서 전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시물을 둘러보며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인 메모리 솔루션 포트

폴리오와 향후 기술 방향을 살폈다. 성공적인 CES 전시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곽 사장이 전시 현장의 디테일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며 회사의 AI 관련 솔루션과 기술력을 알리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AI 생태계 내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이미 구축한 선도적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곽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진정한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5대 금융지주, 5년간 포용금융 70조 투입… 서민·소상공인 금리 완화

정책기조 맞춰 금융취약층 지원 확대
고금리 대출 대한·금리인하 혜택 강화
서민·자영업자 재기·성장 집중 지원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 H농협)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5년간 포용적 금융에 70조원을 투입한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

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저신용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에 대한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신한금융은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뽕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천한다.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1.9%포인트(p)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

어 1000만원을 연 12.5%로 대출받은 차주는 매월 캐시백으로 1만6667원, 1년간 총 20만원의 이자 캐시백을 받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5년간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 대상은 금융소외계층(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으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우리금융은 ‘긴급 생활비 대출’을 연 7% 이하의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신용대출 금리도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1년 이

상 이용한 고객은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환을 적용한다.

농협금융은 올해부터 5년 간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먼저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상품별 최대 우대금리를 0.3~0.5%p로 확대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농업인 우대 규모는 올해 5조 2193억원 2027년 5조 4830억원 2028년 5조 7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자 절감액은 같은 기간 233억원→245억원→257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유리기자 yul115@